
자금이 몰리는



S olar
Cle A n Energy
F inal Frontiers
Gig E conomy

테마 ETF

Summary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테마 ETF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 생각한다. 투자자들의 꿈과 희망은 언제든지 테마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미국에 상장한 테마 ETF는 현재 143개로 최근 10년간 ETF 개수는 연평균 18.5%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총운용자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개수 기준으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또한 ETF를 투자수단으로 고려하는 수익자와 운용자 모두 테마 E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자는 투자목적에 최적화된 투자 수단을 찾을 수 있고, 운용자는 더 높은 수수료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성장하는 테마 ETF 시장에 주목하자.

성공한 테마 ETF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팩터를 활용해 관심 테마 ETF를 선정하였다. 성공한 테마 ETF는 시의적절성, 미니 섹터화, 높은 충성도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가격 모멘텀, 자금유입강도 팩터 등이 있다. 장기누적 성과, 승률,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2M -1M 가격 모멘텀', '9M 가격 모멘텀' 등과 같은 순방향 가격 모멘텀과 '자금유입강도' 상위에 랭크된 ETF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해당 ETF는 앞으로 가격 모멘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며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하면 자금유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테마로 태양광, 클린 에너지, 극지 탐험, 각 경제 등 총 네 가지를 제시한다. 테마별 성장 가능성과 지속해서 관찰해야 할 지표를 정리하였다. 태양광과 클린 에너지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 규제강화로 성장이 기대되는 테마이다. 극지 탐험은 기술발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각 경제는 노동인구 감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 관련 제반 시설 확충 등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다. 테마 ETF를 준비하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테마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은 유용하리라 판단한다. 자산배분 관점에서 Satellite에 편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로 테마 ETF 내 주요 기업과 관련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기업을 정리하였다. 경쟁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중 테마 ETF 성공에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관심을 기대해 보자.

Contents

I. 꿈을 먹고 자라는 테마 ETF.....	4
테마 ETF 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시장	4
II. 팩터를 활용한 성공 테마 찾기.....	8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과 이에 기반한 팩터 전략	8
III. 관심 테마 ETF.....	12
SAFE 테마.....	12
IV. Appendix.....	20
미국 상장 테마 ETF	20

I. 꿈을 먹고 자라는 테마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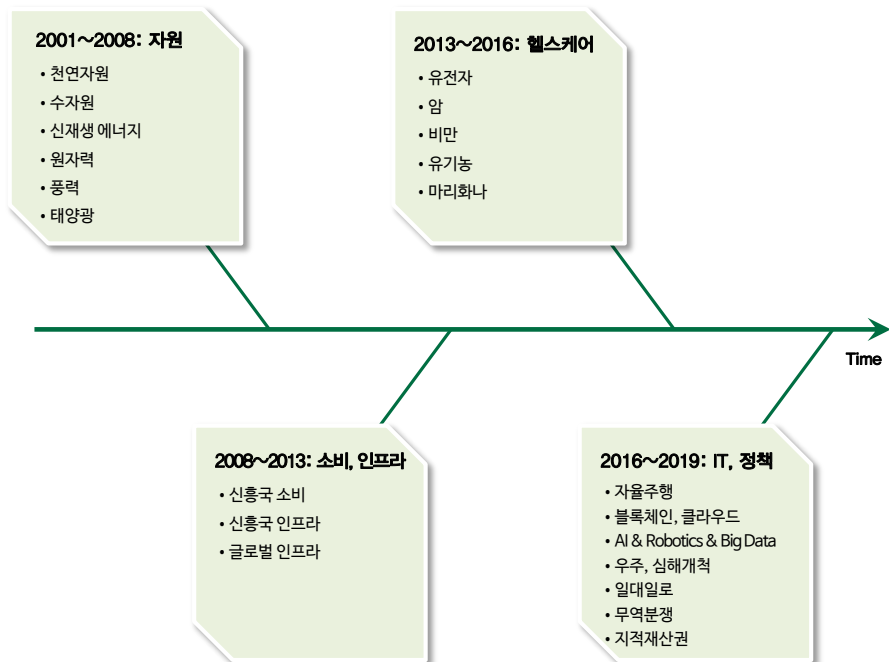
테마 ETF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테마 ETF

어릴 때 그렸던 미래 도시 모습은 한편의 SF 영화와 같았다. 거대한 돔 안에서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우주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었다.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AI, Big Data, 블록체인 등 앞으로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기술발전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꿈을 먹고 테마 ETF도 성장 중이다.

꿈꾸었던 미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희망에 테마 ETF 상장이 줄을 잇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원 관련 테마 ETF 출시가 주를 이루었다. 천연자원, 수자원,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른 신흥국에 관심이 높아졌다. 2013년부터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된 기술에 투자하는 테마가 유행하고 있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관련 테마 ETF 출시가 급증하였다.

도표 1. 꿈을 먹고 자라는 테마 ETF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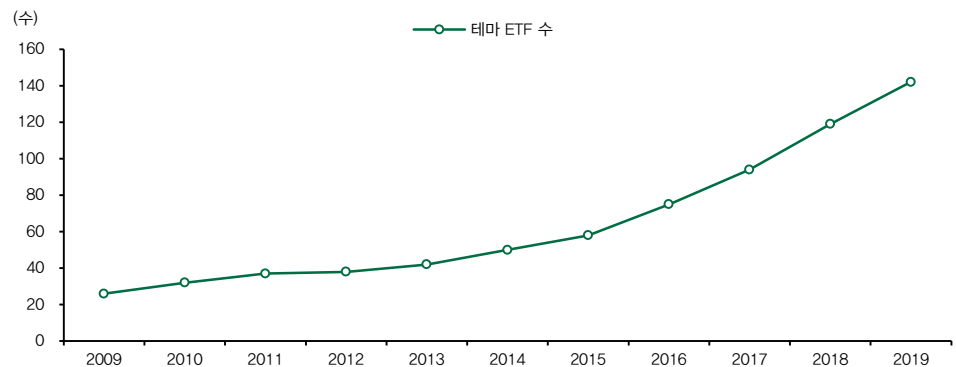
테마 ETF 상장 트렌드 및 분류

미국에 상장한 테마 ETF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장된 테마 ETF는 총 143개로 최근 10년간 ETF 개수는 연평균 18.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테마 ETF를 제외한 ETF 개수는 연평균 12.9% 성장률을 기록했다. 테마 ETF는 총운용자산 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개수 기준으로는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테마 ETF를 IT, 자원, 헬스케어, 소비 등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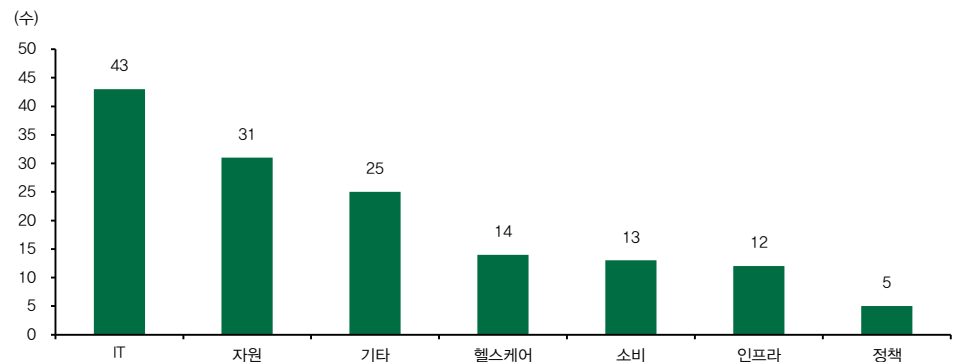
첫째, 테마 ETF 상장 트렌드를 통해 시장 관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테마 ETF가 상장된 부분은 IT이다. AI, Big Data,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자동화, 클라우드, 핀테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테마 ETF는 2018년 12월부터 무역분쟁, 미국 공화당 정책, 일대일로 등 정책 관련 테마 ETF 5개가 상장될 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국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속적인 IT 기술의 발전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며 최근의 테마 ETF 상장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표 2. 미국에 상장한 테마 ETF 수는 연평균 18.5% 성장률을 기록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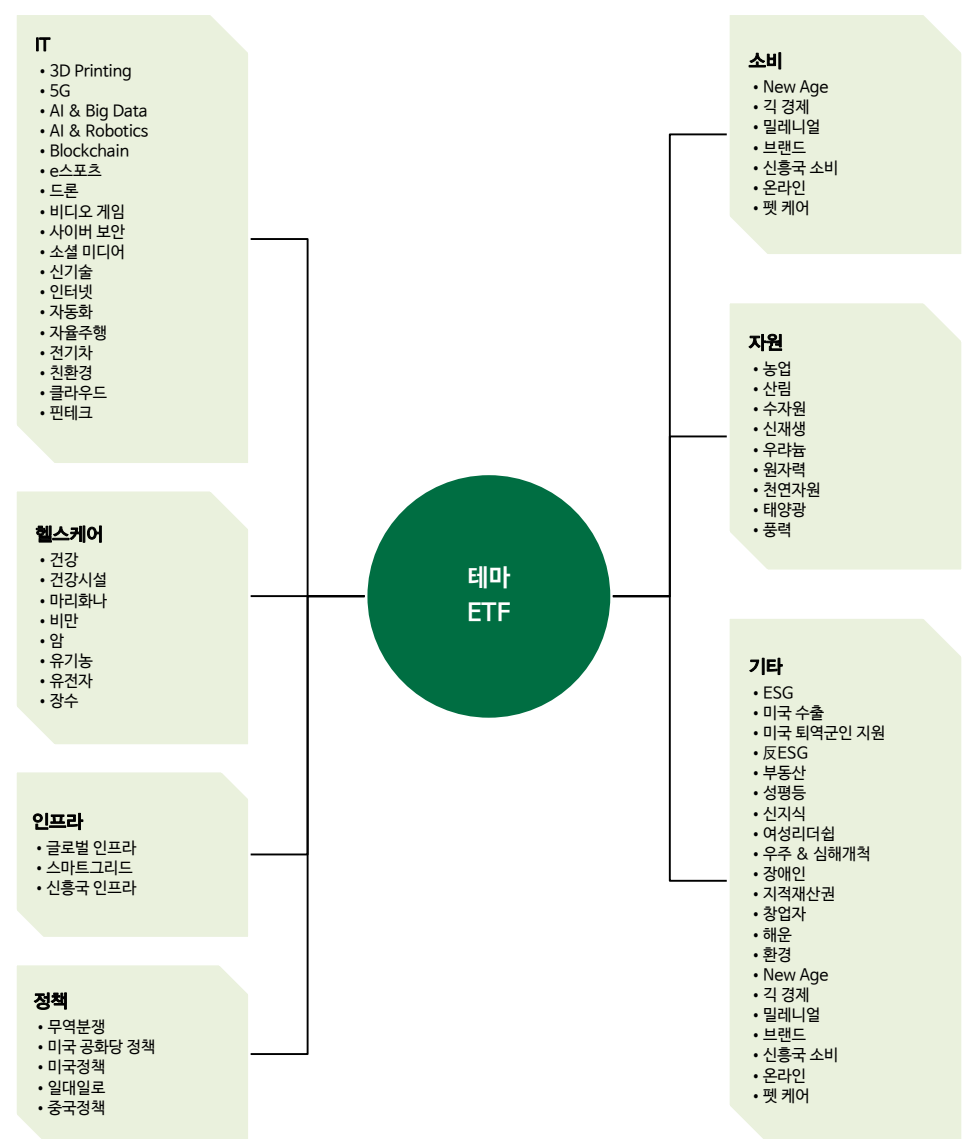
도표 3. 가장 많은 테마 ETF가 상장한 분야는 IT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둘째, 같은 분류 내에서 투자목적에 적합한 ETF를 찾기 위함이다. 미국에 상장된 테마 ETF의 세부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유사한 테마 ETF 중총운용자산, 수수료, 거래량 등을 비교해 투자목적에 적합한 ETF를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 Robotics로 분류되는 테마 ETF는 총 4개가 있다. 그중에서 총운용자산이 가장 큰 것은 Global X Ro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e Thematic ETF[BOTZ: US]로 양호한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단, 수수료가 0.68%로 다른 AI & Robotics 테마 ETF 대비 높은 편이다. 낮은 수수료에 중점을 둔다면 수수료가 0.47%인 iShares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F[IRBO: US]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류별 구체적인 테마 ETF는 Appendix에 정리하였다.

도표 4. 미국에 상장된 테마 ETF 분류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수익자, 운용자 모두 테마 E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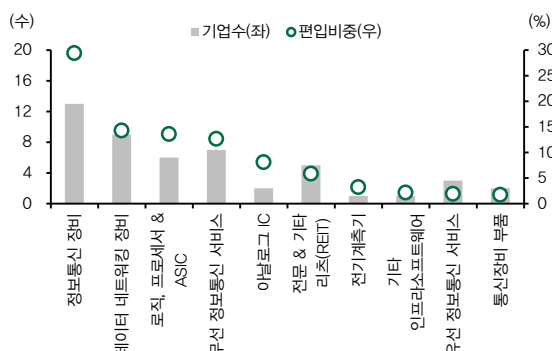
수익자 측면에서 테마 ETF 장점은 선택과 집중이다. **첫째**, 투자목적에 맞는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 비만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The Obesity ETF[SLIM: US]에 투자하면 된다. 이는 헬스케어 섹터를 아우르는 투자를 관찰할 수 있다. **둘째**, 관심 테마와 관련한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 Defiance Next Gen Connectivity ETF[FVG: US]에 투자한다면 5G 관련 부품 제조사부터 서비스 제공 사까지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5G 테마 구성 종목 중에서 시장 관심이 제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사로 이동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표 5. 헬스케어 내 전문화된 비만관련 ETF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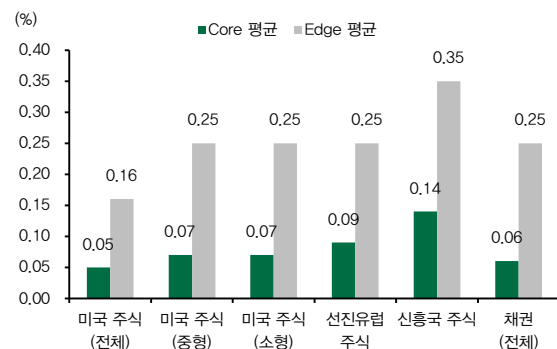
도표 6. 5G ETF 다양한 업종구성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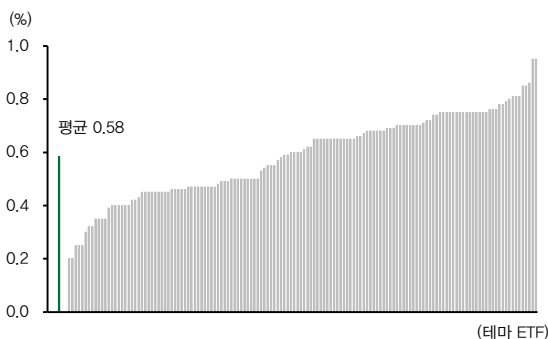
운용사 측면에서 테마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수료이다. 수수료 차이는 ETF 운용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낮은 수수료로 자사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복잡하고 비싼 펀드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블랙록은 낮은 수수료가 강점인 'Core'와 팩터 전략을 기미해 'Core'보다 수수료가 2~5배 높은 'Edge'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대표지수 ETF 부재로 이러한 전략을 사용이 힘든 운용사는 차별화 전략으로 테마 ETF에 집중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ETF를 출시하여 경쟁이 낮은 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평균 0.58%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테마와 관련한 기업을 선정하는 능력에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 준다.

도표 7. 블랙록 iShares ETF Core & Edge 수수료 비교



자료: ETF.com 재인용, DB금융투자

도표 8. 테마 ETF 평균 수수료는 0.58%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II. 팩터를 활용한 성공 테마 찾기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과 이에 기반한 팩터 전략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

ETF.com은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테마 중요성'과 'ETF 강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테마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시의적절성**은 테마 ETF 상장 시점의 시장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 이후 과도한 열기가 진정되며 자금유입 속도가 둔화되거나 폭발적인 자금유입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분기점을 맞이한다. 대표적인 예로 마리카나, 블록체인 테마 등이 있다. **미니 섹터화**는 새로운 분야의 테마 ETF 출시가 성공함에 따라 유사한 ETF 상장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 트렌드에 맞춰 관련 테마 ETF 수와 총운용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높은 충성도**는 펀드성과와 무관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다.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성과가 좋을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유입한다. 이러한 특성은 성공할 테마를 찾기 위한 팩터 선정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ETF 강점이다. 유사한 테마 ETF는 **First Mover** 효과가 두드러진다. 테마 ETF는 미니섹터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총운용자산규모가 1등이라도 거래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설정/환매에 따른 ETF 가격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총운용자산규모가 큰 테마 ETF로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테마 ETF가 출시된다면 자금유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낮은 수수료**이다. 경쟁 ETF보다 수수료가 낮은 ETF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표 9.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



자료: ETF.com, DB금융투자

성공하는 테마 ETF를 찾기 위한 팩터: 가격 모멘텀, 자금흐름강도

앞서 살펴본 성공하는 테마 ETF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팩터를 선정하였다. 미니 섹터화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 성장을 판단하기 위해 가격 모멘텀 팩터를 사용한다. 순방향 모멘텀 팩터로 '12M-1M 가격 모멘텀'과 '9월 가격 모멘텀', 역발상 전략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1M Reversal', 단기 변동성을 점검하는 '1M H-L'을 사용하였다. 높은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3개월 자금유입 강도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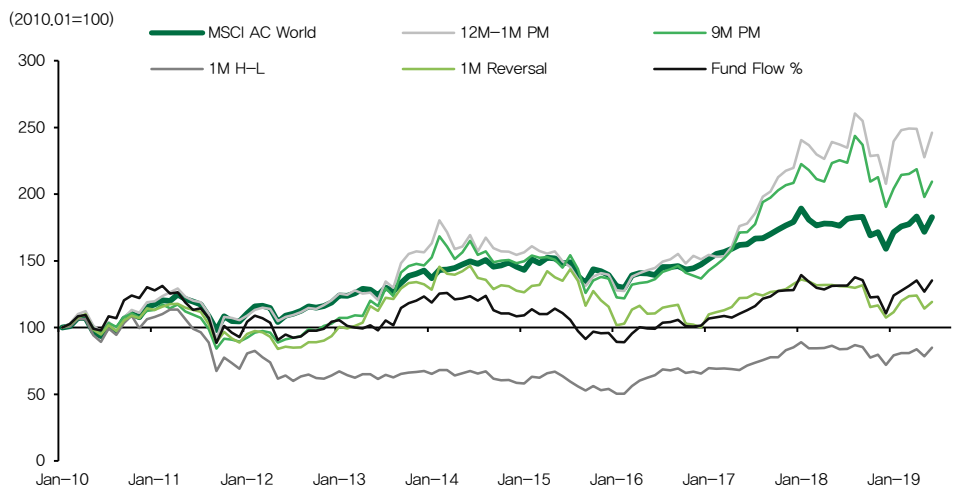
도표 10. 성공하는 테마 ETF를 찾기 위해 사용한 팩터

팩터	수식	정렬
12M-1M Price Momentum	$(\text{Close } M_{i,t-1} - \text{Close } M_{i,t-12}) / \text{Close } M_{i,t-12}$	Descending
9M Price Momentum	$(\text{Close } M_{i,t} - \text{Close } M_{i,t-9}) / \text{Close } M_{i,t-9}$	Descending
1M H-L	$(\text{High } M_{i,t} - \text{Close } M_{i,t}) / (\text{Close } M_{i,t} - \text{Low } M_{i,t})$	Descending
1M Reversal	$(\text{Close } M_{i,t} - \text{Close } M_{i,t-1}) / \text{Close } M_{i,t-1}$	Ascending
Fund Flow %	$\Sigma (\text{Fund Flow } M_{i,t-3}) / \text{Total Net Asset } M_{i,t-3}$	Descending

자료: DB금융투자

팩터에 기반한 투자 전략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테스트하였다. 대부분 테마 ETF가 주식형임을 고려해 벤치마크로는 MSCI AC World지수를 사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월별 리밸런싱으로 팩터 기준 상위 5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한다. 분석 결과 누적성고가 가장 우수한 팩터는 '12-1M 가격모멘텀', 그다음은 '9M 가격 모멘텀'이다. 역발상 전략을 사용한 '1M Reversal', 높은 충성도에 기반한 '자금유입 강도'는 BM을 언더퍼폼 하였다. 단기 변동성에 초점을 두는 '1M H-L'는 BM을 크게 언더퍼폼 하였으며 절대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테마 ETF 투자는 강한 순방향 가격 모멘텀 팩터에 기반한 투자전략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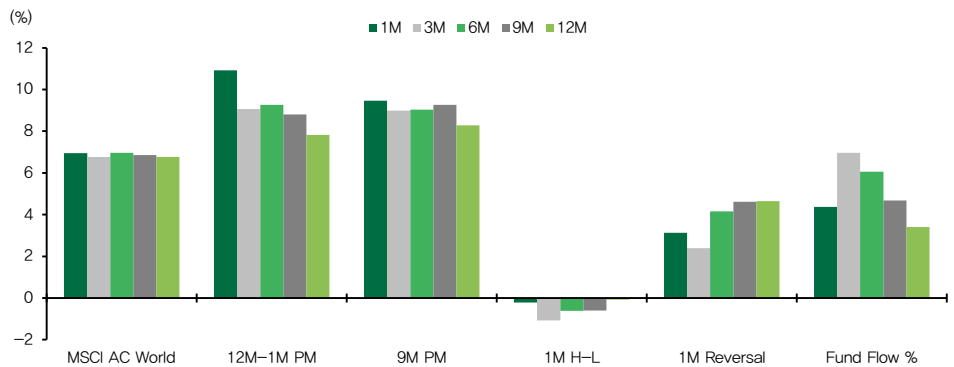
도표 11. 모멘텀 팩터별 테마 ETF 투자성과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테마 ETF의 적절한 보유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기간에 따른 연율화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매월 말 팩터별 상위 5개 ETF에 동일가중방식으로 투자하였다. 투자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이다. 분석 결과 순방향 모멘텀 팩터는 1개월 투자 시 가장 높은 연율화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3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유사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12개월 투자 시에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유입강도를 활용하는 전략은 3개월 투자 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연율화 수익률이 낮아진다. 역발상 전략은 오히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누적 성과가 가장 좋았던 순방향 모멘텀 팩터는 상위 ETF 변화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만큼 1개월 단위의 리밸런싱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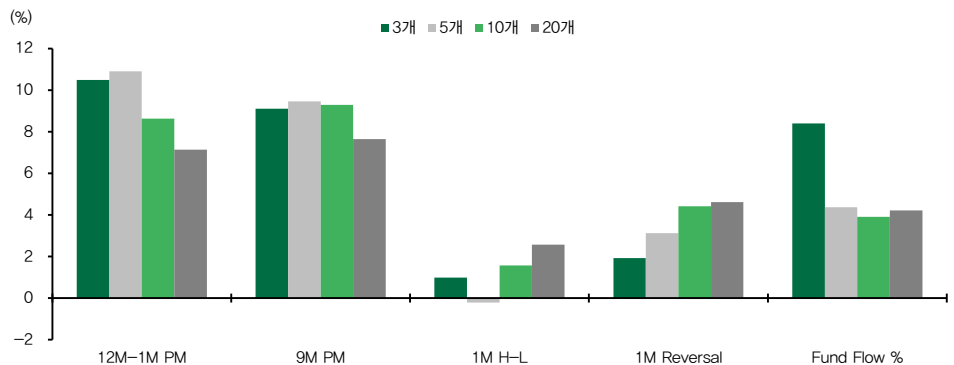
도표 12. 투자기간에 따른 테마 ETF 연율화 수익률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테마 ETF 투자 시 최대 편입 수를 결정하기 위해 투자 개수에 따른 연율화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팩터 상위에 해당하는 ETF를 3개, 5개, 10개, 20개 투자한다고 가정하였다. 순방향 팩터는 5개를 보유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변동성과 역발상 전략은 투자 ETF 개수가 증가할수록 수익률이 개선되었다. 자금유입강도를 사용할 경우 3개만 투자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상장 시점에 폭발적인 자금유입이 나타나는 테마에 집중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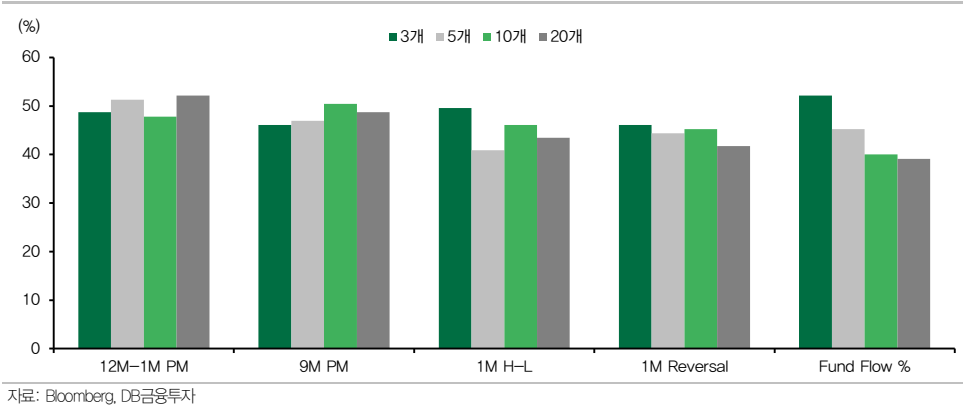
도표 13. 테마 ETF 투자 개수에 따른 연율화 수익률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테마 ETF 투자 개수를 늘리더라도 시장을 아웃퍼폼 하는 확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순방향 모멘텀 팩터는 투자 ETF 개수를 늘리 경우 승률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크지 않다. 단기변동성, 역발상, 자금유입강도 등을 이용한 전략은 오히려 승률이 낮아진다. 유사한 테마 ETF들이 동시에 편입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편입 ETF 수를 늘려 승률을 높이는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도표 14. 테마 ETF 투자 갯수에 따른 승률



가격 모멘텀, 자금유입강도 기준 관심 테마 ETF

순방향 가격 모멘텀과 자금유입강도를 기준으로 관심 테마 ETF를 선정하였다. 장기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12M - 1M PM', '9M PM'과 BM 대비 언더퍼폼 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잘 작동한 '자금유입강도' 팩터를 사용하였다. 앞으로도 가격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테마 ETF에 주목하는 것이다.

도표 15. 가격 모멘텀 및 펀드 플로우를 기준으로 선정한 테마 ETF

순위	팩터		
	12M - 1M PM	9M PM	Fund flow %
1	Guggenheim Solar(TAN)	Guggenheim Solar(TAN)	SoFi Gig Economy(GIGE)
2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SPDR S&P Kensho Clean Power(CNRG)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IDRV)
3	PowerShares WilderHill Clean Energy(PBW)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ROKT)	Global X Genomics & Biotechnology(GNOM)
4	ALPS Clean Energy(ACES)	ALPS Clean Energy(ACES)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ROKT)
5	PowerShares Water Resources(PHO)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Procure Space(UFO)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Ⅲ. 관심 테마 ETF

S.A.F.E. 테마

태양광: Guggenheim Solar ETF[TAN: US]

Guggenheim Solar ETF[TAN: US]는 유일한 태양광 테마 ETF이다. 편입종목이 24개로 종목당 편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태양광 관련 매출 비중에 기초하여 편입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가총액가중방식 대비 태양광 매출 비중이 높은 소형주 편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미국과 중국 기업 비중이 약 85%로 매우 높다. '12M-1M PM', '9M PM' 팩터 기준 1위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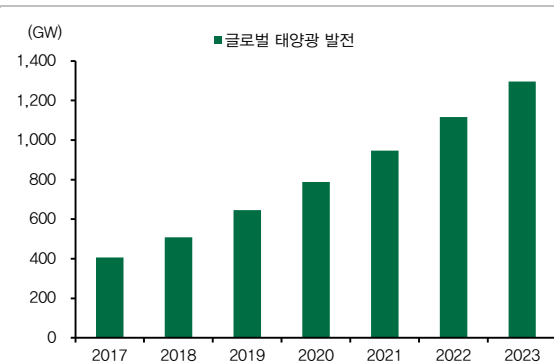
도표 16. Guggenheim Solar ETF[TAN: US] 가격 및 누적자금흐름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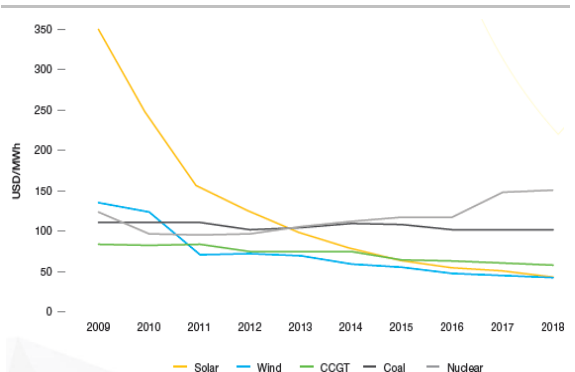
태양광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파워 유럽은 2023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2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태양광 발전원가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태양광 발전원가는 2018년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한 발전원가 감소 속도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빨라 시장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힘든 시기를 거쳐 살아남은 태양광 업체들의 매출 및 이익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도표 17. 2019년 이후 태양광 발전량 평균 20% 증가



자료: Solar Power Europe, DB금융투자

도표 18. 빠르게 많이 하락한 태양광 발전원가



자료: Solar Power Europe, DB금융투자

태양광 ETF 편입비중 상위 종목으로는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인페이즈 에너지, 퍼스트 솔라 등이 있다. 편입비중이 가장 높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는 태양에너지부문에서 전체 매출 100%가 발생하며 그중에서 태양열 변환기 매출비중은 44.5%이다. 자빌, 플렉스, 셀레스티카 등을 공급사로 두고 있으며 경쟁사로는 커네티언 솔라, SMA 솔라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퍼스트솔라는 박막 모듈을 주 사업분야로 하고 있으며 NPC Inc/Japan, MKS 인스트루먼트 등을 공급사로 두고 있다. 신이 광능 공고는 홍콩에 상장된 업을 주요 공급사와 고객사로 두고 있다.

도표 19. Guggenheim Solar ETF[TAN: US] 편입종목

(단위: %)

티커	기업명	편입비중	소개
SEDG US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10.01	· 태양열 발전 최적화 및 광전지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ENPH US	인페이즈 에너지	9.14	· 태양광 모듈 생산성 및 신뢰 향상 솔루션 제공
FSLR US	퍼스트 솔라	8.71	· 박막 반도체기술을 사용한 태양열 모듈 디자인 및 제조
968 HK	신이 광능 공고	7.30	· 다양한 태양열 유리 및 기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
SPWR US	선파워	5.53	· 고성능 태양열 전력 기술 설계, 제조 및 판매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는 대형주는 한화케미칼, OCI 등이 있다.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 및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 셀 9.0GW와 모듈 10.7GW의 생산 규모를 보유중에 있다.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매출원 중 하나로 갖고 있다. 중소형주로는 월링스가 있으며 주요 사업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전력 솔루션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구성요소인 전력변환장치를 자체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며 EPC(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ESS의 설계, 기자재 조달, 공사)사업도 진행한다.

도표 20. 태양광 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

(단위: 십억원 %)

산업구분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산업매출액	총 매출액 내 산업매출 비중
태양에너지	009830 KS	한화케미칼	2,780	2,520	27.9
	010060 KS	OCI	1,580	2,080	62.5
	095910 KS	에스에너지	50	166	100.0
	004710 KS	한솔테크닉스	219	140	16.6
	011930 KS	산성이앤지	195	114	26.9
	180060 KS	탐선	97	98	65.9
	043200 KS	파루	78	33	90.5
	태양열 변환기	313760 KS	월링스	5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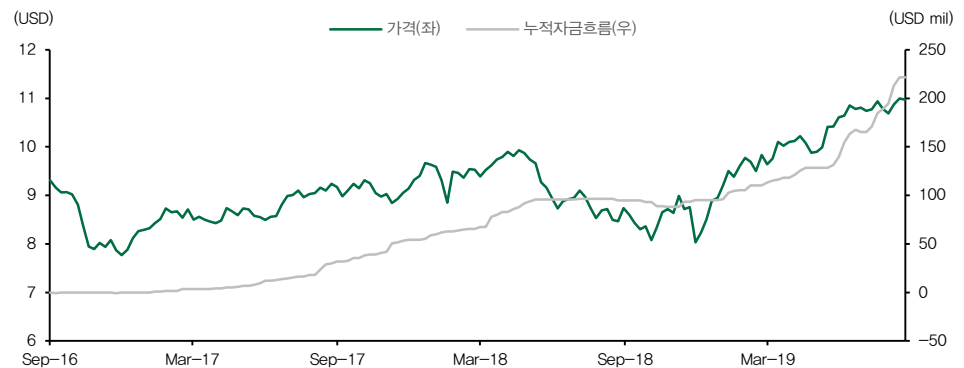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주: 음영은 블룸버그 산업분류 기준 산업분야를 주로 하는 기업

클린 에너지: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US]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US]는 바이오 에너지, 에탄올, 지열, 수력, 태양광 및 풍력 등 클린 에너지 관련 회사에 투자한다.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하며 약 30개 회사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신재생 에너지 ETF 중에서 총운용자산은 가장 많고 수수료는 가장 낮다. 2018년 주춤했던 자금흐름도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순방향 가격 모멘텀 팩터인 '12M-1M PM' 기준 2위, '9M PM' 기준 5위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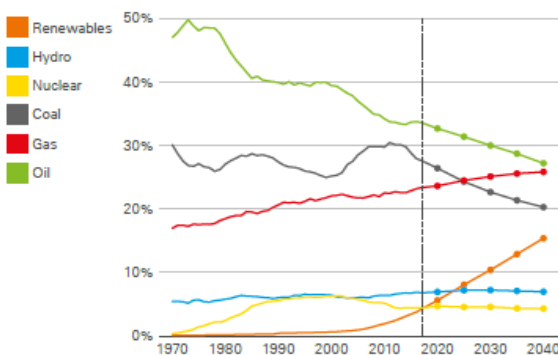
도표 21.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US] 가격 및 누적자금흐름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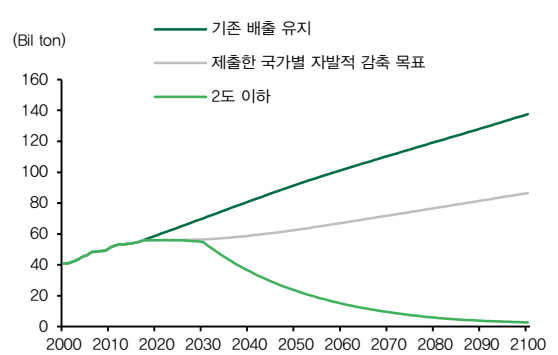
미래 전력수요가 증가와 함께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클린 에너지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BP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증가량의 85%를 클린 에너지와 천연가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클린 에너지 관심은 증가할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기준 평균온도' 대비 최대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Climate Change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의 감소가 필요하다.

도표 22. 원료별 전력 생산 비중



자료: BP 2019, DB금융투자

도표 23. 각 시나리오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량



자료: Climate Scoreboard, DB금융투자

클린 에너지 ETF에 편입된 대표 종목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오마트 테크놀로지스, 컨택트 에너지 등이다. 오마트 테크놀로지스는 지열에너지 발전에서 전체 매출의 71.6%, 지열에너지 장비에서 28.4%가 발생한다. 컨택트 에너지, 메리디언 에너지는 뉴질랜드 기업, 페어분트는 오스트리아 기업으로 각국의 주요 전력생산기업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 클린 에너지 매출비중이 낮은 기업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도표 24.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 US] 편입종목

(단위: %)

티커	기업명	편입비중	소개
SEDG US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7.40	· 태양열 발전 최적화 및 광전지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ORA US	오마트 테크놀로지스	6.13	· 지열, 재회수 등 신재생 에너지 관리 및 저장 솔루션 제공
CEN NZ	컨택트 에너지	5.42	· 뉴질랜드에서 발전과 전기 및 가스 판매
MEL NZ	메리디언 에너지	5.41	· 뉴질랜드 국영 수력발전 업체로 주거용, 기업용, 농촌소비자 대상 전력 공급
VER AV	페어분트	5.03	·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운영, 브루크 안데르 라이타, 홀 러른, 페트로넬 카르노툼에서 풍력 발전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국내 클린 에너지 관련 중소형주로는 한솔테크닉스, 서화건설 등이 있다. 블룸버그 산업분류 기준 지열 에너지 장비가 주산업인 국내기업으로는 이더블유케이가 있다. 이더블유케이의 사업부문은 지열발전과 화공/LNG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매출의 67.2%가 지열발전 부문에서 발생한다. 열수 기화기, 응축기, 배관 등의 지열발전 설비를 제조하고 있다. 대형주는 한화케미칼, OCI 등이 있다.

도표 25. 클린 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

(단위: 십억원 %)

산업구분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산업매출액	총 매출액 내 산업매출 비중
지열 에너지 장비	258610 KS	이더블유케이	86	16	67.2
전력 발전업	035890 KS	서화건설	242	133	11.7
	313760 KS	윌링스	59	16	29.2
	278990 KS	파인이앰텍	16	9	47.4
태양에너지	009830 KS	한화케미칼	2,780	2,520	27.9
	010060 KS	OCI	1,580	2,080	62.5
	095910 KS	에스에너지	50	166	100.0
	004710 KS	한솔테크닉스	219	140	16.6
	011930 KS	신성이엔지	195	114	26.9
	180060 KS	탐선	97	98	65.9
	043200 KS	파루	78	33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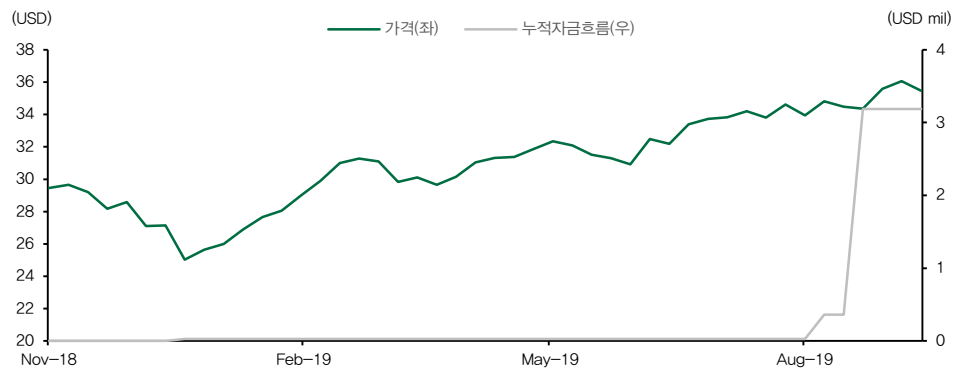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주: 음영은 블룸버그 산업분류 기준 산업분야를 주로 하는 기업

극지 탐험: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 ETF[ROKT: US]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 ETF[ROKT: US]는 심우주(deep space) 및 심해(deep sea)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우주 여행 및 탐사 관련, 둘째는 원격조정, 무인기술 및 드론 시장 관련이다. 키워드 검색으로 편입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SEC에 제출한다. 기본적인 편입비중은 동일가중방식이나 테마와의 관계정도를 핵심 또는 비핵심으로 구분해 가중치를 조절한다. '9M PM' 기준 3위, 'Fund Flow %' 기준 4위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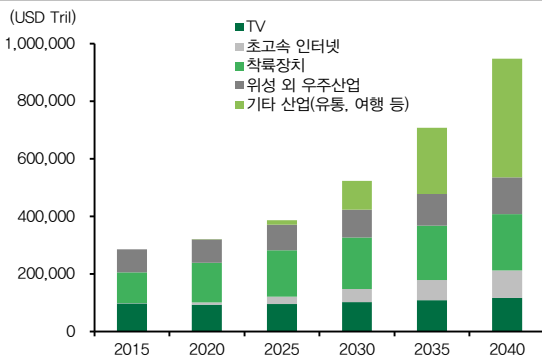
도표 26.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 ETF[ROKT: US] 가격 및 누적자금흐름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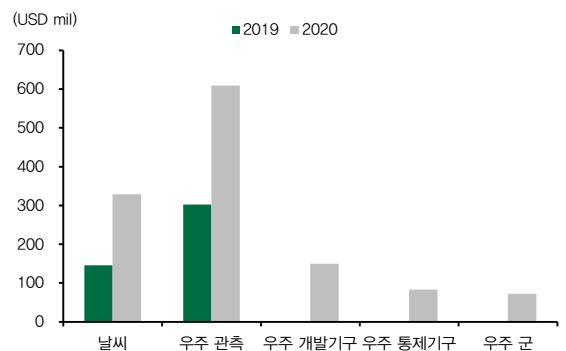
2015년 28만조 달러의 우주경제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건스탠리는 미래의 보편화된 우주 진출이 통신, 유통, 여행 등의 산업에도 영향을 주며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우주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 우주관련 관련 예산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한 141억 달러를 요청했다. 특히 우주 개발기구, 우주 통제기구, 우주 군 창설 등 201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목도 신설하며 전체 예산안을 확대하고자 한다.

도표 27.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 매출 예상



자료: MorganStanley, DB금융투자

도표 28. 우주관련 미 국방 예산에서 크게 증가한 항목



자료: SpaceNews, DB금융투자

극지 탐험 ETF 편입비중 상위 종목은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 노스롭 그루만 등이다. 전자항공 및 방위시스템에서 전체 매출이 발생하는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는 록히드 마틴, 허니웰 인터내셔널, 헤이코 등 26개의 공급사를 두고 있으며 보잉, 에어버스 등 7개의 고객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극지탐험 ETF에 포함된 모든 기업이 미국 기업일 정도로 극지 탐험과 관련한 기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편입 기업간 공급망에 상호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도표 29.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 ETF[ROKT: US] 편입종목

(단위: %)

티커	기업명	편입비중	소개
LHX US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8.54	·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 개발업체로 대기, 육지, 해상, 우주 등에서 고급 방위 및 상업용 기술 제공
TDY US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	5.47	· 항공우주, 방위, 해양 및 환경 애플리케이션, 극한 환경 상호접속 제품 등 제공
NOC US	노스롭 그루만	5.4	· 글로벌 보안업체로 항공, 전자, 정보 시스템 및 기술 서비스 분야의 제품 및 솔루션 제공
AJRD US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홀딩스	5.19	· 자회사를 통해 방위 및 우주 애플리케이션용 추진장치, 정밀 전술 및 장거리 무기 개발 및 제조
HEI US	헤이코	5.11	· 자회사를 통해 미국 공군, 해군, NASA, 방위 위탁업체, 항공사 등에 항공우주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항공기 부품과 관련한 국내 대형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있으며 중소형주로는 아스트, 하이즈항공 등이 있다. 아스트 항공은 오르비텍을 공급사로 에어버스, 보잉, 스프리트 에어로시스템즈 홀딩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오르비텍은 항공기 정밀 부품제조를 주산업으로 하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보잉, BAE 시스템스 등 해외기업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도표 30. 극지 탐험 관련 국내 기업

(단위: 십억원 %)

산업구분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산업매출액	총 매출액 내 산업매출 비중
항공기 부품	012450 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0	1,190	26.7
	047810 KS	한국항공우주산업	3,840	1,080	38.7
	079550 KS	엘아이지넥스원	682	183	10.4
	067390 KS	아스트	238	183	100.0
	077970 KS	STX엔진	169	69	11.9
	065450 KS	빅텍	70	49	100.0
	221840 KS	하이즈항공	83	46	100.0
	046120 KS	오르비텍	100	34	50.0
	263540 KS	샘코	57	31	100.0
	086960 KS	한컴MDS	99	24	15.3
	035460 KS	기산텔레콤	32	24	42.4
방위프라임	012450 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0	2,330	52.3
	047810 KS	한국항공우주산업	3,840	1,710	61.3
	079550 KS	엘아이지넥스원	682	1	81.2
	103140 KS	풍산	621	715	25.8
	064350 KS	현대로템	1,450	527,040	21.9
	064960 KS	S&T모티브	768	10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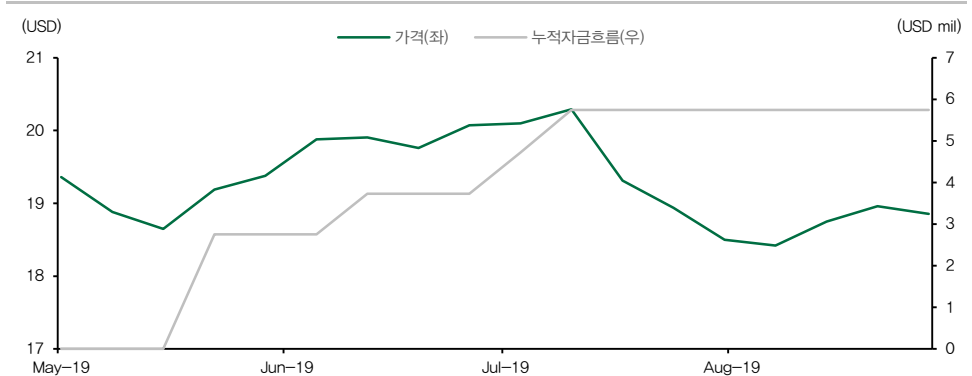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주: 음영은 블룸버그 산업보류 기준 산업분야를 주로 하는 기업

각 경제: SoFi Gig Economy ETF[GIGE: US]

SoFi Gig Economy ETF[GIGE: US]는 액티브 ETF로 '각 경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1)웹 기반 스토어, 2)경매 사이트, 3)앱 기반 플랫폼, 4)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 5)간편 결제로 구분된다. 편입종목 선정방식 및 가중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이다. 총 58개 기업을 편입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상장한 이후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었다. 소비관련 테마로 온라인, 신흥국, 밀레니얼 등에 이어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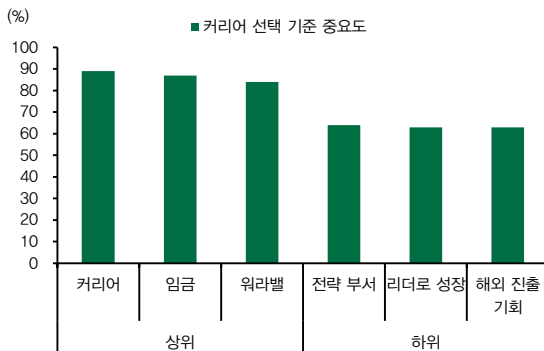
도표 31. SoFi Gig Economy ETF[GIGE: US] 가격 및 누적자금흐름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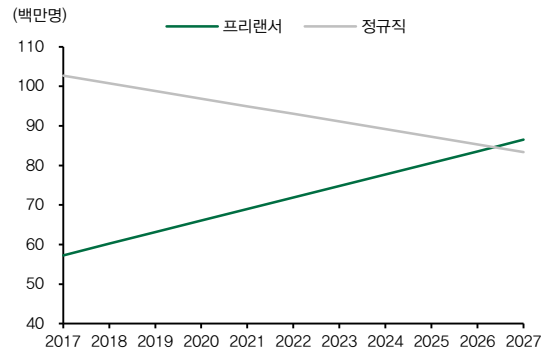
포브스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제반 시설 구축 완료 등이 각 경제의 성장 요인이다. 각 경제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 필요 노동력 적시 공급 등의 장점이 있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리랜서들이 일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 인터넷 시설 등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프리랜서 인구는 370만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프리랜서수가 증가한다면 2027년에는 프리랜서가 정규직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밀레니얼의 47%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도표 32. Gen Z 직업 선택 기준 중요도 상위 3개



자료: 국제회계사연맹, DB금융투자

도표 33. 2027년, 미국 프리랜서가 노동자의 과반 차지



자료: UPwork, DB금융투자

각 경제 ETF에 편입된 대표 종목은 Pinduoduo, 트위터, 페이스북 홀딩스 등이 있다. 편입된 종목들의 공급망을 분석하면 공급사와 고객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 고객사는 P&G, 폭스바겐, 나이키, 월마트 등 총 116개로 전 업종과 관계가 있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홀딩스는 시만텍, 어도비 등 총 10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3%, 섹터별 비중은 IT가 80%로 가장 높다. 각 경제의 제반 시설을 제공할 기업들로 미국 IT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표 34. SoFi Gig Economy ETF[GIGE: US] 가격 및 누적자금흐름

(단위: %)

티커	기업명	편입비중	소개
PDD US	Pinduoduo Inc	3.52	· 모바일 소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커머스 방식과 위챗의 대중성을 합친 서비스
TWTR US	트위터	3.10	·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및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제공
PYPL US	페이스팔 홀딩스	3.02	· 소비자 및 사업장을 대신하여 디지털 및 모바일 지급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지불 솔루션 제공
UPWK US	Upwork Inc	2.83	· 사업자와 프리랜서 연결 서비스 제공 플랫폼
SQ US	스퀘어	2.82	· 모바일 결제 솔루션, 디지털 영수증, 재고 관리 및 판매 보고서용 POS 소프트웨어 개발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각 경제 관련 국내 대형주로는 카카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중형주로는 나이스홀딩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다. 블룸버그 산업분류 기준 금융거래 처리서비스가 주요 산업인 기업은 나이스홀딩스부터 다날까지도 시가총액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온라인 구인, 구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재의 아웃소싱, 헤드헌팅 사업도 진행한다. 국내의 인구구조 변화, 밀레니얼 세대의 직장선택 기준, 고용시장 환경도 글로벌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각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도표 35. 각 경제 관련 국내 기업

(단위: 십억원 %)

산업구분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산업매출액	총 매출액 내 산업매출 비중
전자상거래	035080 KS	인터파크홀딩스	126	3,030	88.2
	016450 KS	한세에스24홀딩스	293	494	19.6
	053280 KS	에스이십사	112	475	93.8
	028150 KS	GS홈쇼핑	1,040	451	40.8
	138250 KS	엔에스쇼핑	337	330	24.6
	057050 KS	현대홈쇼핑	1,110	249	24.4
온라인 광고	035720 KS	카카오	11,480	670	27.7
금융거래 처리서비스	034310 KS	나이스홀딩스	744	697	40.3
	060250 KS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463	433	100.0
	036800 KS	나이스정보통신	368	393	94.6
	064260 KS	다날	212	153	73.1
	094480 KS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125	70	86.4
	046440 KS	케이지모빌리언스	178	66	31.9
	234340 KS	세틀뱅크	359	57	100.0
채용 서비스 웹	025770 KS	한국정보통신	351	26	5.9
	143240 KS	사람인에이치알	315	86	100.0

자료: Bloomberg, DB금융투자

주: 음영은 블룸버그 산업분류 기준 산업분야를 주로 하는 기업

IV. Appendix

미국 상장 테마 ETF

도표 36. 테마 ETF(IT)

(단위: USD mil, %)

대분류	중분류	티커	ETF명	총자산	총보수
IT	3D Printing	PRNT	3D Printing ETF	37	0.66
	5G	FIVG	Defiance Next Gen Connectivity ETF	107	0.30
	AI & Big Data	AIQ	Global X Future Analytics Tech ETF	39	0.68
	AI & Robotics	BOTZ	Global X Ro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e Thematic ETF	1,405	0.68
	AI & Robotics	ROBT	First Trust Nasdaq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ETF	61	0.65
	AI & Robotics	IRBO	iShares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F	50	0.47
	AI & Robotics	UBOT	Direxion Daily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 Automation Index Bull 3x Shares	22	0.95
	Blockchain	BLOK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	109	0.70
	Blockchain	BLCN	Reality Shares Nasdaq NexGen Economy ETF	69	0.68
	Blockchain	LEGR	First Trust Indxx Innovative Transaction & Process ETF	42	0.65
	Blockchain	KOIN	Innovation Shares NextGen Protocol ETF	10	0.65
	Blockchain	BCNA	Reality Shares Nasdaq NexGen Economy China ETF	2	0.78
	e스포츠	ESPO	VanEck Vectors Video Gaming and eSports ETF	33	0.55
	e스포츠	NERD	Roundhill BITKRAFT Esports & Digital Entertainment ETF	9	0.25
	드론	IFLY	PureFunds Drone Economy Strategy ETF	38	0.75
	비디오 게임	GAMR	PureFunds Video Game Tech ETF	84	0.75
	사이버 보안	HACK	PureFunds ISE Cyber Security ETF	1,470	0.60
	소셜 미디어	SOCL	Global X Social Media Index ETF	132	0.65
	신기술	ROBO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Index ETF	1,231	0.95
	신기술	ARKK	ARK Innovation ETF	1,610	0.75
	신기술	XT	iShares Exponential Technologies ETF	2,501	0.47
	신기술	XITK	SPDR FactSet Innovative Technology ETF	63	0.45
	신기술	DTEC	ALPS Disruptive Technologies ETF	72	0.50
	신기술	IZRL	ARK Israel Innovative Technology ETF	20	0.49
	신기술	FITE	SPDR S&P Kensho Future Security ETF	15	0.46
	신기술	FNG	AdvisorShares New Tech and Media ETF	11	0.85
	인터넷	ARKW	ARK Web x.0 ETF	379	0.75
	인터넷	SNSR	Global X Internet of Things Thematic ETF	95	0.68
	인터넷	OGIG	O'Shares Global Internet Giants ETF	48	0.48
	자동화	ARKQ	ARK Industrial Innovation ETF	154	0.75
	자동화	GMAN	Goldman Sachs Motif Manufacturing Revolution ETF	6	0.50
	자율주행	HAIL	SPDR Kensho S&P Smart Mobility ETF	7	0.46
	자율주행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27	0.47
	전기차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28	0.70
	전기차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13	0.68
	전기차	BATT	Amplify Advanced Battery Metals and Materials ETF	5	0.72
	전기차	EKAR	Innovation Shares NextGen Vehicles & Technology ETF	1	0.65
	클라우드	TCLD	Tortoise Cloud Infrastructure Fund	4	0.40
	클라우드	BKCH	AdvisorShares Sabretooth ETF	3	0.85
	핀테크	ARKF	ARK Fintech Innovation ETF	73	0.75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도표 37. 테마 ETF(IT, 기타, 소비)

(단위: USD mil, %)

대분류	중분류	티커	ETF명	총자산	총보수
IT	핀테크	TPAY	Tortoise Digital Payments Infrastructure Fund	6	0.40
	핀테크	LEND	Amplify CrowdBureau Peer-to-Peer Lending & Crowdfunding ETF	1	0.65
	환경	PZD	PowerShares Cleantech Portfolio	187	0.67
기타	ESG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1,160	0.25
	ESG	DSI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1,527	0.25
	ESG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53	0.49
	ESG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84	0.42
	ESG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68	0.43
	ESG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50	0.32
	ESG	ISMD	INSPIRE SMALL/MID CAP IMPACT	101	0.65
	ESG	CHGX	Change Finance Diversified Impact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10	0.49
	ESG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132	0.20
	미국 수출	PEXL	Pacer U.S. Export Leaders ETF	1	0.60
	미국 퇴역군인 지원	HONR	InsightShares Patriotic Employers ETF	1	0.65
	反ESG	ACT	AdvisorShares Vice ETF	13	0.75
	부동산	RAAX	VanEck Vectors Real Asset Allocation ETF	31	0.74
	성평등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320	0.20
	신지식	KLDW	Gavekal Knowledge Leaders Developed World ETF	132	0.75
	여성리더쉽	WIL	Barclays Women in Leadership ETN	40	0.45
	우주 & 심해개척	ROKT	SPDR Kensho S&P Final Frontiers ETF	7	0.45
	우주 & 심해개척	UFO	Procore Space ETF	12	0.75
	장애인	RODI	Barclays Return on Disability ETN	41	0.45
	지적재산권	INAU	Innovation Alpha United States ETF	3	0.81
	지적재산권	INAG	Innovation Alpha Global ETF	3	0.81
	창업자	BOSS	GLOBAL X FOUNDER-RUN COMPANY	4	0.45
	해운	SEA	Guggenheim Shipping ETF	46	0.66
	환경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36	0.55
	환경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8	0.45
소비	New Age	GBUY	Goldman Sachs Motif New Age Consumer ETF	5	0.50
	각 경제	GIGE	SoFi Gig Economy ETF	8	0.59
	밀레니얼	MILN	Global X Millennials Thematic ETF	79	0.50
	밀레니얼	GENY	Principal Millennials Index ETF	22	0.45
	브랜드	BVAL	Brand Value ETF	14	0.65
	신중국 소비	CHIQ	Global X China Consumer ETF	150	0.65
	신중국 소비	ECON	EGShares Emerging Markets Consumer ETF	246	0.59
	신중국 소비	INCO	EGShares India Consumer ETF	107	0.76
	신중국 소비	EMCG	WisdomTree Emerging Markets Consumer Growth Fund	38	0.32
	온라인	CLIX	ProShares Long Online/Short Stores ETF	49	0.65
	온라인	ONLN	ProShares Online Retail ETF	23	0.58
	온라인	XBUY	Amplify International Online Retail ETF	3	0.69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도표 38. 테마 ETF(소비, 인프라, 자원)

(단위: USD mil, %)

대분류	중분류	티커	ETF명	총자산	총보수
소비	펫 케어	PAWZ	ProShares Pet Care ETF	46	0.50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	IGF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	3,239	0.47
	글로벌 인프라	GII	SPDR S&P Global Infrastructure ETF	396	0.40
	글로벌 인프라	NFRA	FlexShares STOXX Global Broad Infrastructure Index Fund	1,393	0.47
	글로벌 인프라	TOLZ	ProShares DJ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ETF	113	0.46
	글로벌 인프라	GHII	Guggenheim S&P High Income Infrastructure ETF	59	0.45
	글로벌 인프라	INFR	LEGG MASON GLOBAL INFRASTR	21	0.53
	글로벌 인프라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132	0.47
	글로벌 인프라	IFRA	iShares U.S. Infrastructure ETF	7	0.40
	글로벌 인프라	GLIF	AGFIQ Global Infrastructure ETF	3	0.45
	스마트그리드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27	0.70
	스마트그리드	SIMS	SPDR Kensho S&P Intelligent Structures ETF	9	0.46
	신흥국 인프라	EMIF	iShares Emerging Markets Infrastructure ETF	24	0.75
자원	농업	MOO	VanEck Vectors Agribusiness ETF	663	0.54
	농업	FTAG	First Trust Indxx Global Agriculture ETF	3	0.70
	농업	SOIL	Global X Fertilizers/Potash ETF	10	0.69
	농업	CROP	IQ Global Agribusiness Small Cap ETF	8	0.76
	농업	VEGI	iShares MSCI Global Agriculture Producers ETF	26	0.39
	산림	CUT	Guggenheim MSCI Global Timber ETF	124	0.55
	산림	WOOD	iShares Global Timber & Forestry ETF	210	0.47
	수자원	PHO	PowerShares Water Resources Portfolio	1,007	0.62
	수자원	CGW	Guggenheim S&P Global Water Index ETF	655	0.62
	수자원	FIW	First Trust ISE Water Index Fund	431	0.57
	수자원	PIO	Powershares Global Water Portfolio	191	0.75
	수자원	TBLU	Tortoise Global Water ESG Fund	8	0.40
	신재생	PBW	PowerShares WilderHill Clean Energy Portfolio	181	0.70
	신재생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113	0.60
	신재생	PBD	Powershares Global Clean Energy Portfolio	48	0.75
	신재생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344	0.47
	신재생	YLCO	Global X YieldCo Index ETF	24	0.65
	신재생	KGRN	KraneShares MSCI China Environment ETF	4	0.78
	신재생	ACES	ALPS Clean Energy ETF	87	0.65
	우라늄	URA	Global X Uranium ETF	192	0.69
	원자력	NLR	VanEck Vectors Uranium+Nuclear Energy ETF	23	0.61
	천연자원	IGE	iShares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ETF	579	0.47
	천연자원	HAP	VanEck Vectors Natural Resources ETF	67	0.50
	천연자원	GRES	IQ Global Resources ETF	145	0.76
	천연자원	GNR	SPDR S&P Global Natural Resources ETF	1,052	0.40
	천연자원	FTRI	First Trust Indxx Global Natural Resources Income ETF	8	0.70
	천연자원	GUNR	FlexShares Morningstar Global Upstream Natural Resources Index Fund	5,465	0.46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도표 39. 테마 ETF(자원, 정책, 헬스케어)

(단위: USD mil, %)

대분류	중분류	티커	ETF명	총자산	총보수
자원	천연자원	NANR	SPDR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ETF	721	0.35
	천연자원	BUYN	USCF SummerHaven SHPEN Index Fund	1	0.95
	태양광	TAN	Guggenheim Solar ETF	437	0.70
	풍력	FAN	First Trust ISE Global Wind Energy Index Fund	73	0.60
정책	무역분쟁	TWAR	Innovation Alpha Trade War ETF	3	0.81
	미국 공화당 정책	MAGA	Point Bridge GOP Stock Tracker ETF	16	0.72
	미국정책	PLCY	EventShares U.S. Policy Alpha ETF	18	0.86
	일대일로	OBOR	KraneShares MSCI One Belt One Road Index ETF	18	0.80
	중국정책	KFYP	KraneShares Zacks New China ETF	4	0.71
헬스케어	건강	BFIT	Global X Health & Wellness Thematic ETF	19	0.50
	건강시설	OLD	The Long-Term Care ETF	25	0.35
	마리화나	MJ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	940	0.75
	마리화나	TOKE	Cambria Cannabis ETF	8	0.42
	마리화나	YOLO	AdvisorShares Pure Cannabis ETF	56	0.74
	마리화나	THCX	The Cannabis ETF	20	0.70
	마리화나	CNBS	Amplify Seymour Cannabis ETF	5	0.75
	비만	SLIM	The Obesity ETF	10	0.35
	암	CNCR	Loncar Cancer Immunotherapy ETF	34	0.79
	유기농	ORG	The Organics ETF	10	0.35
	유전자	ARKG	ARK Genomic Revolution Multi-Sector ETF	408	0.75
	유전자	GDNA	Goldman Sachs Motif Human Evolution ETF	9	0.50
	유전자	GNOM	Global X Genomics & Biotechnology ETF	14	0.68
	장수	LNGR	Global X Longevity Thematic ETF	21	0.50

자료: Bloomberg, ETF.com,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사

본사 영업부 02) 369-3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DB금융투자빌딩 1~2층)

대전 · 충청지역

대전 042) 522-66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2층)
 천안 041) 569-7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 (에이엠타워 2층)
 청주 043) 253-9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205번길 57 (WM타워 5층)

서울지역

강남금융센터 02) 3474-9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삼원빌딩 3층)
 DB금융센터 02) 301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빌딩 3층)
 청담금융센터 02) 514-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2층)
 목동금융센터 02) 2636-6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7기독교방송 1층)
 압구정금융센터 02) 3445-8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증권빌딩 2층)
 을지로금융센터 02) 753-9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3층)
 잠실 02) 419-6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 다길 42 (루터회관 1층)

부산 · 경상지역

남포 051) 242-6000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90 (남포메디칼센터 2층)
 부산 051) 515-62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353 (BNK부산은행 2층)
 센텀 051) 741-7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대우트럼프스퀘어 2층)
 양산 055) 388-09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04호)
 창원 055) 600-55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3층)
 대구금융센터 053) 476-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99 (호연빌딩 2층)

경기지역

분당 031) 718-7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2 (보명프라자 4층)
 인천 032) 518-343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3 (메디캐슬빌딩 2층)
 평촌 031) 382-62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하나은행빌딩 4층)
 진접 031) 572-40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20 (광장빌딩 3층)
 화성향남 031) 366-09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 (중앙빌딩 3층)

광주 · 전라지역

광주 062) 655-34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4 (삼환빌딩 4층)
 전주 063) 229-22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0 (효자메디컬프라자 2층)

강원지역

강릉 033) 641-8629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5 (성호빌딩 3층)
 원주 033) 765-940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6 (리더스타워 3층)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